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그룹

안영숙 박사

“순수 고천문 연구와 천체역법, 이 두 분야를 같이 담당하고 있어요. 당장 한국표준연구원 산하 국가참조표준센터에 일·출몰과 음·양력 자료를 등록하고 인증 받는 작업부터 준비하고 있지요. 인증 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요.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야하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요. 프로그램 내용도 다 밝혀야 해요. 복잡합니다. 양홍진 박사와 이기원 박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룹원들과 함께 고인들의 별자리와 조선시대의 혜성에 관한 연구를 펼쳐갈 계획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고천문연구그룹 그룹장 안영숙 박사님을 만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KASI 뉴스레터를 관장하던 천문정보사업팀 팀장으로 일하셨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당사자가 되고 보니 좀 떨리고 어색하다는 소감부터 털어놓으신다. 하지만 어색함은 금방 사라지고 인터뷰 내내 침착하지만 빠른 리듬으로 이야기를 조목조목 늘어놓으셨다. 고천문연구그룹이 독립 부서로 출발하게 된 데 대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았다.

“필요성은 계속 제기했었어요. 역대 원장님들도 관심을 보여주시고 조금씩 도와주셨지요. 그런데 박석재 원장님이 워낙 우리 천문학 뿌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뿌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 부서만의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독립 부서의 장점인 것 같고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고천문연구그룹을 이끄는 안영숙 그룹장님은 해야 할 일도 많고 욕심도 많이 난다며 의욕을 보이셨다.

“개인적으로는 연력표를 출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 4년 6월 11일이라고 사서에 적혀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서기로 몇 년, 몇 월, 며칠 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연대 및 날짜 대조표지요. 그동안 해 놓았던 작업을 더 널리 알려서 역사학자나 다른 연구자들이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하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기초 작업이에요. 올 연말 출판이 목표입니다.”

안 박사님은 혼자서 고려시대 연력표를 만들고 있던 중 역시 독립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 계시던 영남대 한보식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에는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양홍진 박사가 가세하면서 고려시대 연력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저는 참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혼자서는 못해요. 나눠서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무척 즐겁고 신이 났었어요. 그 후에 조선시대 연력표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럼 삼국시대를 빼 놓을 수가 없었죠. 내친김에 삼국시대 연력표도 완성했지요.”

그동안 비매품으로 출판되었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일식도를 개선하여 정식으로 출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종이책뿐만 아니라 이북(eBook)으로도 출간을 해서 더 널리 보급하고 싶은 욕심이란다. 고천문연구그룹에서는 조선시대의 천체 현상을 천체역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역대 천문대장들의 목록도 정리 중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영의정이 맡았어요. 그만큼 위상이 높았던 것이지요. 하늘

의 학문은 임금이 관장하는 것이니까요. 국보인 천상열차분야지도는 마모가 심해 글씨를 읽을 수 없어서 내용을 판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첨단 스캔 장비를 사용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해 두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천문학의 기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모두 마땅히 연구원에서 맡아서 해야 할 기초적인 일들입니다.”

안 박사님의 일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년의 길이를 측정하는 규표를 상징적으로 한국천문연구원 안에 복원하고 싶고, 더 욕심을 내면 천문유물 전시실도 마련하고 싶다고 하신다.

“표준자오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연구도 거의 끝마쳤어요. 일광절약제 관련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게 에너지 분야와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천문학 쪽에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그 쪽 분야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타 분야와의 연합과 통섭이 유행이잖아요.”

또 하나의 기초 프로젝트인 우리나라 고대의 모든 천문 현상을 기록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고려사의 천문 현상 기록은 거의 다 마쳤는데, 조선왕조실록의 모든 천문 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은 워낙 양이 많아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글과 한문 원문 연계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기록을 영어로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외국학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잖아요.”

끝없이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안영숙 박사님의 일 이야기를 잠시 뒤로하고 박사학위 논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원래는 쌍성연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제가 맡고 있던 일이 역법 쪽이니 현업과 관련된 학위논문 주제를 잡으면 어떻게냐는 조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칠정산외편을 학위 주제로 삼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한번은 칠정산내편으로 학위논문을 쓰셨던 이은희 박사님이 책을 펴놓고 읽어도 또 읽어도 모르겠고 막연했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심정이었지요. 자료를 읽는데에만 몇 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또 좀 아팠고요. 그래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칠정산외편의 일식과 월식 계산방법 고찰'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사실 안 박사님은 논문 작업에 앞서서 오랫동안 역서 계산과 편찬 작업을 도맡아서 해오셨다.

“1992년 좀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HP9825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제가 프로그래밍을 좀 일찍 배워서 할 줄 알기도 하고 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역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1997년에서 98년 무렵부터는 거의 혼자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별 재미가 없었는데 할수록 재미가 붙네요. 또 민원 담당을 같이 맡다보니 별의 별 사람들을 다 만났고요.”

여행용 가방 두 개에 계산 결과를 가득 담고서 찾아왔던 주역에 통

달한 인천 할아버지, 새로운 천문학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기쁘다며 다짜고짜 가족들 사주팔자를 봐주던 할아버지, 정확한 만세력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던 소설가, 해상박명시간 문의하던 백령도 군인, 인삼밭 가리개 각도를 물어보던 농부, 홈페이지에 실린 만세력의 오타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온 어느 시민….

“사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일이 어떻게 실생활에 쓰이며, 왜 필요한가를 깨닫고 또 알게 됩니다. 큰 자국이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은 의아했던 안영숙 천문정보사업팀 팀장의 등장. 그 시절 이야기가 궁금했다.

“처음에는 내 스스로 내가 그런 생활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 못했어요. 내 속에 있는 나의 또 다른 능력이랄까...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는 걸 새롭게 발견했고요. 큰 보람을 느꼈고 아주 재미있었어요. 필필 뛰는 물고기랄까요. 그런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유기적으로 매순간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나까 늘 살아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죠. 천문정보사업팀 멤버들 모두 인간성도 좋고 능력도 있어서 일하는 게 무척 즐거웠어요.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안영숙 박사님이 국립천문대에 취직하던 1977년에는 국내 대학 천문학과와 국립천문대 통틀어서 여성 천문학자는 안 박사님 혼자였다. 남다른 느낌이 있을지 궁금했다.

“물론 첫 여성 천문학자로서의 부담감과 의무감이 있지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모임, WISE(Women Into Science Engineering) 센터, WIST(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센터 등 여기저기 여성과학기술인과 관련된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천문학의 존재를 각인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고 있었어요. 세계여성과학자대회에서 ST 분과로 독립된 세션을 열어서 한국 여성 천문학자들이 발표를 할 때는 그동안 뛰어나던 보람을 느꼈지요.”

안영숙 박사님의 이야기는 주제를 바꿔가며 이어졌고 끝을 모르고 흘러가고 있었다. 내년 '세계 천문의 해'에는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문학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안 박사님의 따뜻한 포부를 들으며 늦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